

충북인 & 기업

디지털 전환의 시대! 고객의 가치를 디지털로 전환하다

이수안 (주)카페인마케팅 대표이사

회원칼럼 p.3

이영성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경제좌담회 p.9

단양군, 지역경제 활성화

나미옥의 그림이야기 p.7

故)하동철 作

도정소식 p.10-11

2023년 정부예산 8조1천억원 확보 '쾌거'

월례강연회 p.8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특강

독토파티 p.12

정문섭 에이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 대표이사

실험실 창업과 그 전망



이명성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의 교원이나 학생이 실험실의 성과물(특허, 논문,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창업(Lab to market)하는 것을 말한다. 고급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기술 창업이나 아이디어 창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와 기업의 생존율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정부도 실험실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9년 3월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대학발 실험실 창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과 한국형 I-Crops(아이코어)사업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도 ‘창업초기 정부지원확대 및 스케일 업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대학 창업기지 전환창업가 양성’ 등의 사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 대학도 2020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기반으로 대학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사업수행 이전에는 연평균 2-3건 정도의 교원(실험실) 창업 기업이 설립에 그쳤으나 사업수행 이후 실험실 창업기업이 2020년 6개, 2021년 13개, 2022년에는 16개 기업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대학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 최초로 ‘창업연구년 제도’를 신설하고 교원 업적평가에 창업환경에 유리하도록 개선하여 충청권역 창업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창업이후에도 사업연계를 통한 실험실 창업기업 전용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등의 지원체계를 통해 전국 20개 대학중 선정율 1위, 사업비 18억원 수주를 기록할 만큼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연구자들도 처음부터 창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대학 연구자(교원 및 학생)는 몇몇 부분에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지 않았다. 첫째, 전통적으로 연구와 창업의 목표는 다르다는 인식이 강했다. 연구자의 결과물인 특허나 논문이 곧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는 것 처럼 연구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곧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났다. 둘째, 기술이전은 할 수 있으나 직접 사업화는 하지 못한다는 인식 또한 지배적이었다. 현실적으로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기술개발보다 사업화 과정이 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학의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이 연구자들의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 셋째, 창업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거나 창업은 생업과 결부된다는 생각이 창업을 망설이는 요인이었다. 기술기반 창업이나 아이디어 창업의 경우 초기창업기업에 제공되는 정부와 대학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를 해소했다.

대학의 실험실 창업기업이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창업에 대한 대학내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법 제도적 지원의 지속과 확대가 필요하다. 실험실 창업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개별적인 IR(Investor relations)을 통한 투자유치에 힘겨워하던 때와 달리 전문적인 AC(Accelerator)와 VC(Venture Capital)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가 실패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실패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거나 실패로 인해 생계를 고민해야할 수준의 전통적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창업에 실패한 연구결과물은 연구가치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피봇팅(Pivoting)을 통한 전환이 연구 가치를 높이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의 연구자들과 지역의 경제인들이 함께 창업을 고민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허리띠를 조여야할 때이다. 약소하게 시작한 실험실 창업이 강소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경제포럼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고객의 가치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확산하다

(주)카페인마케팅



요즘 시대, 요즘 마케팅!

요즘 사람들은 지갑에 카드 한 장 없이 KTX를 타고, 예약된 쏘카로 이동한다. TV 정규방송을 기다리는 대신 정액제 넷플릭스로 원하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세 살부터 쓴다는 돋보기 구글링으로 새벽 배송 샐러드를 배달받는다.

위드코로나의 상황은 행사 등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작년 고교학점제를 홍보하는 '미래교육 한마당'은 '36개 고교 영상'과 함께 교육 정보를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기업의 해외전시는 모바일로 제품 정보를 제공해 바이어에게 전략적으로 해외고객을 연결했다.

해마다 발간되는 기업지원사업 편람은 인쇄 부수보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검색된다. 무엇보다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행사는 관객과 함께 활발한 참여로 진행된다. 이렇게 딱 요즘 마케팅, 요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기관과 기업, 학교의 업무를 연결하고 성과있게 일궈내는 기업이 있다. 바로 이수안 대표가 경영하는 카페인마케팅이다.

겁 없는 창업, 호랑이 등에 올라탄 줄 알아라!

이수안 (주)카페인마케팅 대표이사는 학부 시절부터 은행마케팅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했을 정도로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다.



① 회의모습 ② 직원들과 오늘도 화이팅



③ 여성기업 몽골방문 기업활동에서 오송엑스포 홍보 ④ 영남대학교 창업기업마케팅 강연장면

1995년 기아그룹 카오디오, ECU, 전장부문 계열사인 기아전자 기획실에 입사해서 교육, 홍보 업무를 추진한 경험이 지금 사업의 밑동이 되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이나, 중견기업 재직 당시에도 이수안 대표에게 마케팅은 늘 열정을 일으키는 특별한 분야였다.

창업 당시엔 SNS 운영, 홈페이지, 브로셔 등의 홍보물 제작을 단순하고 쉽게 생각했다. 20대부터 해 온 일이라 겁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마케팅 산업은 레드오션이었고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한 거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막연한 기대에 차가운 반응을 경험하고 있을 때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대표님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줄만 알아라’

한번 올라타면 내릴 수도 없고 달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창업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 자칫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기존 마케팅과는 뭔가 달라야 했다.

결국 원점에서 다시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마케팅 기업으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다. 디지털마케팅에 관련된 더 많은 책을 읽고, 서울로 올라가 숙식을 하면서 다양한 클래스를 듣고, 체계적인 정보습득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최신의 마케팅 과정을 수료했다.

최근에도 이수안 대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대전환시대

비즈니스 생존전략’ 과정을 수료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I전략경영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데이터 구축 가공과 AI 활용을 위한 전략에 관해서도 공부 중이다.

업(業)의 본질을 담은 사명, 카페인마케팅

기업에게 마케팅은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높은 기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마케팅 자원을 점검하고 목표 실행을 위한 채널이나 툴을 선별, 최적의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이유인즉, 마케팅은 제품의 제조 못지않게 높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수안 대표는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머릿글자를 모티브로 사명(社名)을 지었다. 이는 고객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독자적인 채널의 도구를 소셜 플랫폼으로 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카페인마케팅 사명은 이러한 목표를 돕고 함께 행동할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를 하나 더 하자면 카페인의 중독성을 표현했다.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중독시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① 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 ② 카페인마케팅 포트폴리오와 인증서



마케팅계 슈퍼루키, MZ직원에게 배우는 조직문화

작지만 강한 팀워크, 남다른 감각과 톤을 가진 다양한 개성의 결정체, 카페인마케팅 직원들은 젊고 의욕적인 20대이다. 대학 입시요강, 중견기업 브로셔, 정부기관 홍보물 등 다양한 일을 잘 처리하는 직원들 역량은 가히 마케팅계 슈퍼루키다.

이번에 ‘플렉스’(자랑하다, 빼기다의 뜻) 워드를 활용한 모대학 입시요강도 원래는 고루한 주제 이미지가 나올 뻔했다. 이때 과감히 원론적인 주제어 대신 MZ세대 직원의 심플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제안 이유도 단순하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는 이유가 전부였다. 때론 너무 단순해서 괜찮을까 하는 디자인도 있는데 막상 작업하고 보면 심플하고 깔끔해서 반응이 좋다. 고객사 입장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칭찬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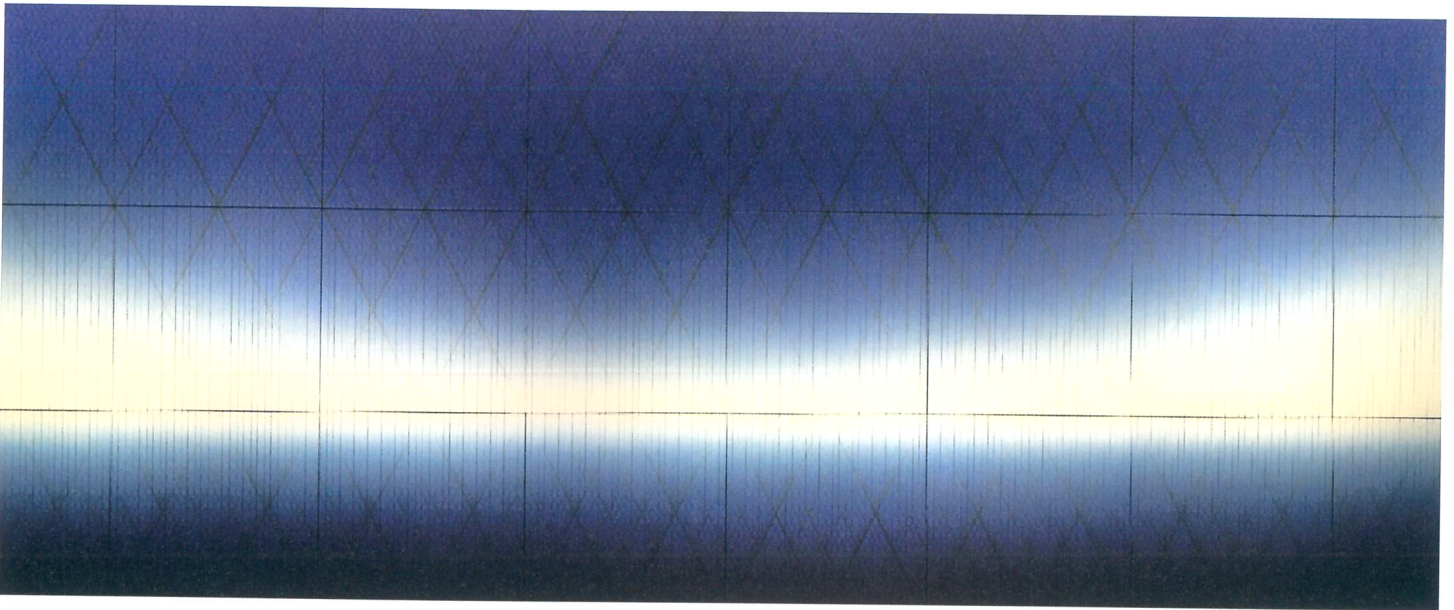
MZ 직원들은 문화도 남다르다. 직급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존댓말을 사용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절대로 말을 놓는 법이 없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그게 편하다고 한다. 그만큼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기본이 되었다.

가끔 서로 소통이 안되거나 갈등이 있을 때도 한데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며 일을 처리한다. 사실 가르쳐 준 것도 없이 서로 배려하며 만들어진 문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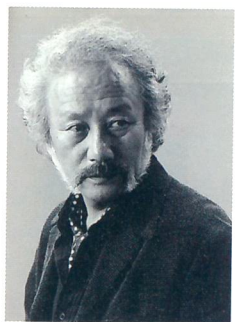
카페인마케팅의 사과나무

카페인마케팅은 모바일 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이나, 기관, 학교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주력해 왔다. 좋은 콘텐츠를 SNS에 꾸준히 개발하고 산업내 거버넌스나, 고객과의 지속가능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어 기관은 기업과, 기업은 학교와, 학교는 학생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가꾸어낸다. 창업 5년차, 카페인마케팅은 초기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함께 해 주는 고객사와 함께 성장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 원짜리 줍지 마라”는 책에서 말하듯 눈앞의 이익에 눈멀지 않고 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며 차분히 때를 기다려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 같은 기업이고 싶다. 과장됨으로 치장하기 보다는 제품 하나하나에 진정성을 담아 준비하고 마케팅을 했을 때 열매가 크듯 경영에도 진정성을 담고 싶다고 한다. 파편화된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시대 속에 서로 소통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카페인마케팅! 한결같이 곁에서 응원해 주는 고객과 어리지만 스승이 되어주는 스태프들 속에서 빅픽처를 그리는 카페인마케팅의 행보에 기대감 가득 찬 눈길을 보내본다. 



하동철 <light> 02-35, 2002, 캔버스에 아크릴릭, 270x900cm



하동철 _ (1942~2006, 충북 옥천)

- 196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79 미국 템플대학교 타일러 스쿨 오브 아트 대학원 판화과 졸업
- 1974 국전문화공보부장관상
- 1986 베니스비엔날레에 첫 한국관 대표작가
- 서울예술고등학교, 성신여자대학교
- 198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 200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대형작품이 품어내는 에너지는 사람을 압도한다. 약 10M에 달하는 작품은 한편의 웅장하고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커다란 공간을 장악하듯 펼쳐져 있다. 이 작품은 한국 기하학적 추상의 대가이며, <빛의 작가>로 유명한 충북 출신 하동철 작가의 <빛>작품이다. 파란 우주공간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찰나의 빛이 하얗게 포물선을 그리며 강렬히 쏟아진다. 거대한 기운과는 달리 작품은 태풍 속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과 같은 고요함과 은은함 그리고 따뜻한 감동이 묘하게 전해진다. 발길을 옮겨 작품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수없이 교차되고 반복되는 길고 짧은 수직, 수평 그리고 예각과 둔각의 가는 선들이 전 화면을 꽉 채우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나미옥
갤러리청주 관장

충북경제포럼, 제235차 월례 강연회 개최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한국의 서비스업 : 현재와 미래 과제



(사)충북경제포럼(회장 차태환)은 한국은행 충북본부(충북본부장 신승철)와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목요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포럼회원과 경제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35차 월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 강연회에는 차태환 충북경제포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승철 한국은행 충북본부장과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전현배 교수의 특강에서는 “한국의 서비스업 : 현재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 하락 원인에 대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의 증가’라고 분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도 고용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기보다는, 업종별, 직종별 차별적인 고용변화에 대비하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에 의한 제도 준비와 지역별 고용 격차가 커질 것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제포럼 · 단양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경제좌담회 개최

차태환 사단법인 충북경제포럼 회장은 지난달 19일 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단양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제좌담회를 개최했다.

관계 전문가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여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앞서 (사)충북경제포럼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미래 일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라고 생각해,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양군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좌담회는 강성규 충북도 투자유치과장의 '단양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확대방안'과 손문영 단양군 지역경제과장의 '단양 新산업 방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순으로 펼쳐졌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성규 충북도 투자유치과장은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으로 중장기적 산업단지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및 공공실버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다. 투자유치 전략으로는 산업단지 대규모 부지를 공급해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와 투자지구 등을 제시했다. 또한 30만㎡ 이상의 규모와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통한 중·장기적 산업단지 조성을, 단양군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 및 공공 실버타운 도입을 강구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손문영 단양군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내 시멘트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저탄소 화학연료의 생산·공급·유통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군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CO₂ 및 미세먼지 동시 포집을 통한 청정연료 생산과 오염물질 감축,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를 제조하는 기술 개발을 소개했다.

단계별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CCUS 핵심기술 발굴, 2단계 탄소중립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3단계 지역적 지원체계를 구축을 통한 군의 신산업의 방향을 제언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본격 추진

올해 시범사업 50명 선발...
교육후 일손 부족 농가에 투입



도농 상생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충북을 실현 시킬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리 도는 9월 16일 도시농부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민간사회단체 소속으로 구성된 50명의 도시농부 시범단에게 도시농부증을 수여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이 영농현장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충북형 인력지원 조직이다.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영농현장에 도시 유휴인력을 연결해 내국인력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도농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 도는 도시농부 시범단의 영농현장 본격 투입에 앞서 9월 14일부터 2일간 농촌이해, 작물 재배 기초교육, 인문학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이수한 시범단 50명은 9월 19일부터 11월까지 사과, 고구마, 시설채소 등의 수확과 마늘·양파 파종 등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도시농부에게는 1일 4시간 근로 기준으로, 농가에서 6만원이 지급되고 그중 40%인 2만4천

원을 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소지와 작업장 거리에 따른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로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우리 도는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농부 시범단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도시농부 500명을 모집, 육성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3천명의 충북형 도시농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도지사에 취임하고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뜻깊은 것 같다”며 “여러분이 함께하는 도시농부 사업이 잘되면 충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환 도지사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농촌을 살리는 도시농부는 ‘혁명수비대’로 충북형 일자리 운동을 확산시켜 도시 유휴인력이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일손 부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단이 9월 18일 진천 만나CEA 에서 현장 교육을 진행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3년 정부예산 8조1천억원 확보 '쾌거'

도정 사상 최대 규모...
충청내륙고속도로 등 대거 반영

우리 도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8조 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충북 도내 관련 사업비는 8조1천124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최종) 7조6천703억원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충북 도정 사상 최대 규모다.

김수인 도 예산담당관은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 균형발전, 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정부의 예산 투자 방향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액 8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도는 정부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공모사업 예산이 올해 163건 1천961억원에서 내년 164건 2천549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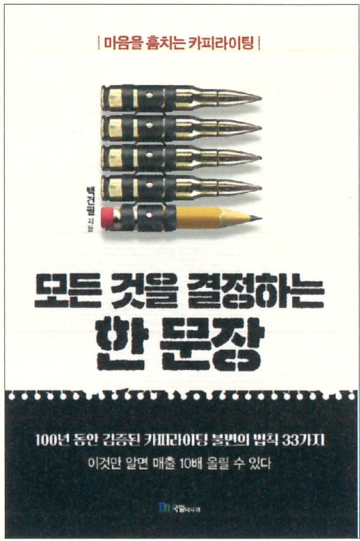
분야별 정부예산안 확보액은 복지·여성 2조3천477억원, 산업·경제 1조6천231억원, SOC 1조5천865억원, 농업·산림 1조914억원, 환경 8천270억원, 소방·안전 3천456억원, 문화·관광 1천603억원 등으로 SOC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보액이 늘었다.

민선8기 공약 이행 관련해서는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지

원 기반구축 12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미래 친환경차 에너지 효율 검증 시험센터 구축 30억원(총사업비 15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9억원,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 50억원, 반려동물보호센터건립 15억원 등 86개 사업 3천693억원을 확보했다.

주민 숙원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비도 대거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충청내륙고속도로(1~4공구) 건설 1천221억원(총사업비 8천827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 1천487억원(총사업비 2조5천394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1천33억원(총사업비 9천731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273억원(총사업비 4천782억원), 제천수산~단양 단성 국도 12억원(총사업비 1천270억원) 등이다. 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충주 심향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미선나무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심사해 확정한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문장

저자: 백건필

“기발한 카피, 끌리는 카피,
기억에 남는 카피,
중독성 있는 카피,
지갑을 여는 카피의 모든 것”

어느 화창한 봄날, 눈이 먼 노인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는 팻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도와주세요.” 마침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그 자리에서 팻말을 고쳤다. 남자가 떠나자 모금함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나중에 남자를 다시 만난 노인이 물었다. “도대체 팻말에 뭐라고 쓰신 겁니까?”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의미는 같아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죠.” 그가 쓴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화창한 날입니다. 하지만 전 그걸 볼 수가 없군요”

1장 마음을 훔치는 카피라이팅」중에서(YES24중)



저자 백건필은 아이디어셀러 대표다. 고대 국문과 졸업후 8년간 국 어교사 활동하다 퇴직 후 아이디어셀러를 창업했다. 1천 편이 넘는 인터넷 강의를 찍으며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더욱 유명해졌다. 이 책의 저자는 전설적인 카피라이터 존 케이플즈와 로버트 콜리어 를 멘토로 원서를 구해 읽으면서 카피라이팅을 연구했다고 한다. 존 케이플즈에게는 헤드라인 쓰는 법을 배웠고, 로버트 콜리어에게는 보디카피 쓰는 법을 익혔다. 여기에 마케팅 심리학을 공부하고, 직접 비즈니스를 하면서 익힌 것을 하나로 합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테스트하면서 탄생한 완벽한 카피라이터 공식이 바로 마음 을 움직이는 카피라이팅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문장’이라는 책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지난 7년간 축적된 강의의 엑기스를 모두 담았다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알차게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완벽한 카피라이팅 공식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확 꽂히는 헤드라인을 쓰는 6가지 유형, 둘째, 고객을 설 득하는 8단계 PERSUADE 공식, 셋째, 즉시 결재하는 CLOSING 기법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책이 다른 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1) 원론적 카피가 아닌 실전에서 살아남은 카피를 사용하고 있고, 2) 외국에서 통용되던 카피가 아니 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카피라는 점, 3) 남의 사례가 아니라 저 자가 직접 쓴 카피의 예문이 소개되고 있고, 4) 실전과 떨어진 카피가 아니라 오늘 배우면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카피들이며, 5) 읽으면 끝이 아니라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버 ‘스터디언’ 구독자만 150만 명에 이를 정도 로 인기도 최정상을 달리고 있다. 조회수가 1백만이 넘는 영상도 많 아 책으로 이론을 익히고, 이곳에서 실전 사용 사례를 확인해보면 아 주 유익한 병행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카피라이팅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행 동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장 잔고’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이 책에서 만났던 명문장을 인용하 면서 책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관찰’을 반복하면 ‘통찰’하게 되고, 통찰을 반복하면 ‘현찰’에 이른다.’ 



정문섭
에이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
대표이사



회원소식

(주)지식통운, 진천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주)지식통운(대표 지식완)이 지난달 13일 (재)진천군장학회 (이사장 송기섭)를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 대표는 "중·고등학교를 진천에서 졸업한 사람으로서 지역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번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두고 함께 상생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코프로, 충북교육청에 도서구입비 2천만원 전달



(주)에코프로(대표이사 김병훈)가 충청북도교육청에 학생 도서 구입을 위한 지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달 21일 교육감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병훈 에코프로 대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금으로 책을 구매해 오창초, 내수초 등 청주시내 8개 초등학교 1천 3백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 권씩 나눠줄 예정이다.

여경협 충북지회, 몽골여성협회와 MOU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몽골에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의 계기를 마련했다.

충북지회 양기분(주일진게이트 대표) 지회장을 비롯해 16개 회원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했다.

지난 22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나담경기장에서 농산물가공제품엑스포를 참관한 후 볼로르출롱 경공업부장관, 우노르볼로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23일에는 셀렝게도 만달군을 방문해 몽골여성협회 셀렝게도지회와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 일손돕기 봉사활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장식)는 지난달 22일 청주 오창읍 소재 사회적기업 휴먼케어(대표 송유정)를 찾아 사회적기업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중진공 충북지역본부 직원들은 사회적기업 휴먼케어를 직접 방문해 요양시설 내외 환경정비, 건물 외부계단 옥상 정화, 업체 내 마당 청소·잔디 잡풀제거 등 현장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정장식 충북지역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의 환경이나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스와이솔루션, 대체육 기술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대상



대체육 푸드테크 스타트업 (주)에스와이솔루션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2022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지난달 24일 대상을 받았다. '도전! 우리가 만드는 농업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에스와이솔루션은 대체육 브랜드 미트체인의 독자적인 식물성 고기 제조 기술로 대통령상(대상)을 받았다. 박서영 대표는 "대체육의 맛, 영양을 개선하여 채식인만의 식품이 아닌 비채식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식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지식경영분과위원회 9월 모임



충북경제포럼 지식경영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완 동의보감한의원장)는 지난달 9일에 회의를 가졌다. 정문섭(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 대표) 회원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문장'이란 책을 발제하고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홍보분과위원회 9월 모임



충북경제포럼은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이대웅 충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는 지난달 23일 모임을 했다. 이날 회의는 포럼뉴스 10월호 발간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 논의 했다.

● 정책분과위원회 9월 모임



충북경제포럼 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락 청주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5일에 회의를 가졌다. 박승락 위원장은 'ESG경영'란 주제로 발제하고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글로벌교류분과위원회 9월 모임



충북경제포럼은 글로벌교류분과위원회(위원장, 장경식 성산하이텍 대표)는 지난달 16일 모임을 했다. 이날 회의는 '휴살림'을 견학하고 국내 견학에 대하여 논의 했다.

제236차 월례강연회 안내

- 일 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07:00
- 장 소 :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3층 직지홀
- 주 제 : 메가 FTA 시대 충북 대응전략
- 수출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
- 강 사 : 이창우 (World FTA Forum 회장)

포럼뉴스 원고를 기다립니다

포럼뉴스는 회원들이 보내오는 원고를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원칼럼, 생활상식이야기, 경제전망대 등 모든 지면은 회원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시길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사무국에 알려주십시오.

원고마감은 매월 20일 경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8~10매입니다. 그리고 표지이야기에 본인과 기업을 소개하고 싶은 회원도 알려주시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발행처 충북경제포럼 사무국 발행인 차태환 편집 홍보분과위원회
Tel. 043-213-1194 Fax. 043-216-1194 e-mail. dig0523@naver.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530, 충북테크노스타워 동관 418-1호
등록번호 청주라00043